

## 구글 홈(인공지능 스피커)

- 대화를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 : 머신러닝
- 어떻게 론칭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
- 박보검 목소리를 크롤링, 음성 코딩 (듀플렉스 라는 기술)
- "질문을 할 수 있는 인재" -> 듀플렉스라는 기술을 가지고 인공지능 스피커가 아침에 깨워준다면?

1.trend savvy - 내가 속해있는 곳에만 안주하지 말고, 다양한 것에 관심가지는 것. 창의력 - 다양한 다른 것들을 연결할 수 있다.

2.deep thinking - 깊게 생각하는 것. 현실에 관철시킬 수 있는 것.

3.collaboration - 주변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것. (내성적인 것과 외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)

### 1. trend savvy



사진판단(개와 빵) - 기계가 인간을 넘어선 지 오래다. (머신러닝)

"소파에 어린아이와 강아지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" 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.

동양 남자가 두손을 모으고 강충강충 뛰는 장면(강남 스타일) -> 유튜브의 내부 알고리즘에 적용.

(다른 팀의 기술을 접목시킴)

사람의 관절을 트래킹해서 관련 영상 서치 -> 개발자의 여자친구 덕분에.

### 2. deep thinking

특정 인물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앱 - 노이즈 캔슬링 + 입술 모양을 읽는 머신러닝.

프랑켄 스택 (기술을 여러개 모아두었는데, 사용되지는 않음 ex.옴니아)

유저의 환경까지 고민하는 것 - 맥북의 전원케이블(자석)

자율주행자동차 - 신호등을 없애자(25~50% 시간 절감)

### 3. collaboration

은행강도를 잡는 방법에서 시작된 프로젝트 (몽개진 픽셀의 얼굴 사진 -> 고해상도 복원)

모자이크 복원. 사진의 철조망 삭제. 인물 이외의 픽셀 몽개짐 등.

협업을 중요시함.

리더쉽, 구글스러움 - 이타심. 공격적인 질문에 대한 반응(떨리는 것은 감점 안되지만, 부정적인 경우는 감점. 젊은 꼰대를 싫어한다)

---

행동하는 리더쉽

a에서 b로 이동하는 고릴라 무리. 모든 무리가 넘어갈 때 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보스.

자기의 삶을 혁신하는 방법 : 마이크로 모멘츠.

일어나서 잘때까지. 출근 5분, 점심식사 5분. 퇴근 5분. 새로운 트렌드를 접하는 시간

---

모교 방문, 프린트물을 나눠줄 테니 각 줄 별로 나와라 했더니...

1.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
2. 몇 명인지 세서 말하고 기다리는 사람
3. 몇 명인지 세서 직접 가져가는 사람
4. 프린트물을 세서 나눠주는 사람